

‘프로야구 개막’ LG·키움·KT 우승 후보...판세 ‘4강·3중·3약’

투타 전력 강한 LG·키움·KT·SSG 우승 후보

두산·KIA·롯데, 중상위권 정조준...내달 1일 개막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KT 위즈, SSG 랜더스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3 KBO리그가 다음달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한다.

올 시즌도 예년과 같은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열린다. 2연전 편성이 폐지됨에 따라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

올해도 치열한 우승 다툼과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이 예상된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 되는 팀은 LG와 키움, KT, SSG이다. 하지만 각 구단의 전력 차가 크지 않아 작은 변수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LG는 케시시 켈리와 아담 플러트 등 외국인 선발투수와 정우영, 고우석이 이끄는 불펜진이 강하다. LG는 선발이 일찍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다양한 불펜진을 갖고 있다. 지난해 팀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마운드 구성을 보였다.

김윤식, 이만호 등 LG 선발진이 분발해준다면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해민, 홍창기, 김현수 등이 이끄는 LG 타선도 막강하다.

다만 LG 마무리 고우석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비 도중 당한 어깨 부상이 변수로 보인다.

키움은 창단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KBO 최고의 타자 이정후와 지난해 최고의 구위를 보여준 안우진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은 우승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키움은 안우진과 에릭 요키시, 아리엘 후라도, 최원태 등 좋은 선발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타선에서 이정후, 김혜성 외 좋은 타격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적다는 게 흠이다. 때문에 키움은 새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KT는 고영표와 소형준, 배제성이 이끄는 선발진이 강하다. 외국인 투수 2명을 포함하면 선발 10승 투수 5명이 가능한 구단이다.

강백호와 박병호, 앤서니 알포드가 이끄는 중심타선 역시 10개 구단 중 가장 강한 편이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주인공 SSG 랜더스 역시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SSG 에이스 김광현, 커크 맥카티, 오원석



에 박종훈, 문승원이 선발투수로 가세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에니 로메로가 어깨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선발진은 충분히 강하다.

다만 공백기가 있는 박종훈과 문승원이 과거와 같은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SSG는 시즌 후반 전력에 크게 흔들렸던 점으로 인해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창단 후 처음 9위로 추락한 두산 베어스와 지난해 5위로 포스트시즌에 올랐던 KIA 타이거즈, 겨우내 착실한 보강을 한 롯데 자이언츠는 중상위권을 노린다.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 선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올해 세 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했고, 시범경기를 통해 토종 선발 최원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강속구 투수 광빈의 성장도 예상된다. 정철원, 홍건희 등 필승조도 든든하다.

‘국민타자’ 이승엽 감독의 지도를 받은 타선이 반등한다면 충분히 5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허경민, 양석환 등 주축 타자들의 선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KIA는 포수 박동원을 빼앗기고 보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 앤더슨이 위력적인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 아도니스 메디나 역시 수준급 피칭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스 양현종에 임기영과 루키 윤영철이 선발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KIA는 나성범과 황대인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이끄는 중심타선에 박찬호와 김선빈 등 짜임새 있는 타선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는 2017년 정규리그 3위에 오른 이후 줄곧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은퇴한 간판타자 이대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롯데는 맨 스트레일리, 찰리 반즈에 박세웅, 한현희, 나균안 등이 포진한 선발진도 탄탄하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



스는 중위권을 바라보지만 다소 약한 전력을 갖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투타에서 난조를 보여 7위에 머물렀다. 스토브리그에서 김상수와 오선진을 빼앗기고, 보강을 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뷰캐넌과 엘버트 수아레스 원투펀치는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토종 선발 원태인과 백정현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C는 우승 포수 양의지를 두산에 빼앗겼다. 박세혁을 영입했지만 양의지의 공백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노진혁마저 롯데로 이적했다.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가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 타자 제이슨 마틴이 시범경기에서 불안감을 노출했다. 선발진은 투경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수 테일러 와이드너의 허리 부상도 치명적이다.

한화는 시범경기에서 1위에 오르며 선전했지만, 여전히 선발진이 불안하다. 스토브리그 때 영입한 채은성, 이태양, 오선진과 문동주, 김서현 등 신인 선수들이 활약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소속팀 전념’ 발언한 김민재, ‘묵묵부답’ 출국

취재진 질문 답하지 않은 채 팬서비스

우루과이전 패배 후 소속팀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불러온 김민재(나폴리)가 발연에 대한 해명 없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김민재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항공기를 타고 정우영, 이재성과 함께 출국했다. 이탈리아 나폴리로 가는 직항이 없는 탓에 김민재도 독일을 경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는 전날 발언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팬들과 사진 촬영을 한 뒤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김민재는 전날 우루과이전 후 돌발 발언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하려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았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전 후 기자들과 만나 “힘들다. 멘탈 쪽(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당분간은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만 좀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우루과이전 직전 언급과는 맥락이 달랐다. 김민재는 27일 열린 우루과이전 기자회견에서 “부상 없이 대표팀에 와서 계속 활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상이 있거나 혹은 어떤 기량을 유지하지 못하



면 대표팀에서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지를 잘 하는 게 목표인 것 같다. (A매치)경기 수는 제 몫을 다하는 만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표팀 수비의 핵인 김민재가 여운을 남긴 채 이탈리아로 떠나면서 향후 김민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KIA, ‘뒷돈 요구 의혹’ 장정석 단장 해임... “용납할 수 없어”

FA 박동원과 협상에서 금품 요구 논란

KIA 타이거즈가 ‘뒷돈 요구’ 의혹을 받는 장정석 단장을 해임했다.

KIA는 29일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장정석 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임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장 단장은 지난해 말 프리에이전트(FA) 박동원과 협상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구단은 “지난 주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장정석 단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종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KIA 단장으로 선임된 장 단장은 트레이드와 FA 영입 등 적극적인 전력 보강으로 지난해 팀의 포스트시즌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뒷돈 의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KIA를 떠나게 됐다.

KIA는 이날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기도 했다.

사과문도 함께 발표했다. KIA는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다음은 KIA 사과문 전문.

KIA 타이거즈는 최근 불거진 장정석 단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개막을 앞두고 있는 KBO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게 돼 리그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KIA 타이거즈는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품 요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곧바로 장정석 단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KIA 타이거즈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데뷔골 아쉬웠던 오현규, 셀틱서 득점포 노린다

우루과이전 후반 골망 흔들었지만 취소... “다음에는 공식적 골 넣고파”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오현규가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결과는 오프사이드로 인한 노골.

‘WBC 1R 탈락’ 한국, 세계랭킹 5위로 ↓...일본 1위 유지

한국 야구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랭킹이 5위로 떨어졌다.

28일 WBSC가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한국 남자야구는 4049점으로 5위를 마크했다. 세 달 만에 또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은 2016년 12월31일 세계랭킹 3위로 올라섰고, 2021년 8월11일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31일 발표된 랭킹에서 3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 12월31일에는 4위로 밀려났다. 이번 랭킹 발표에서는 5위로 더 떨어졌다.

WBSC는 12세부터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각 나라가 최근 4년간 국제대회에서 올린 성적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부진했던 한국은 세계랭킹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은 14년 만의 4강 진출을 목표로 했지만, 같은 조에 속했던 호주, 일본에 연거푸지며 2승2패로 1라운드 탈락 고배를 마셨다.

B조 3위에 머문 한국에는 랭킹 포인트 621점이 주어졌다.

WBC 우승팀인 일본에는 랭킹 포인트 1150점,

1	JPN	5323	COMBINE
2	USA	4462	COMBINE
3	MEX	4130	COMBINE
4	TPE	4061	COMBINE
5	KOR	4049	COMBINE
6	VEN	3534	COMBINE
7	CUB	3151	COMBINE
8	NED	3089	COMBINE
9	AUS	2600	COMBINE
10	DOM	2415	COMBINE

준우승팀인 미국에는 953점이 돌아갔다. 4강에 오른 쿠바와 멕시코는 각각 906점을 얻었다.

일본은 이번에도 세계랭킹 1위(5323점)를 유지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한 번도 세계랭킹 최상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2위(4402점)로 한 단계 올라섰고, 멕시코는 3위(4130점)로 두 단계를 뛰어 올랐다.

2023 WBC 1라운드에서 탈락한 대만은 2위에서 4위(4061점)로 떨어졌다. WBC A조 5위에 그친 대만에는 랭킹 포인트 242점만 주어졌다.